

2024 봄

제226호

천주교 서울대교구  
해외선교봉사국 소식지

# 시로 사랑하여라



# 해외 선교사제

9개 국가 22명

독일 신정훈 미카엘

스페인 고가람 스테파노

일본

신광수 베드로 (P.06)

정해성 베드로 (P.23)

김태근 베드로

김윤복 모세

김필중 세례자요한

안민우 아우구스티노

김성천 스테파노

기호배 맛세오

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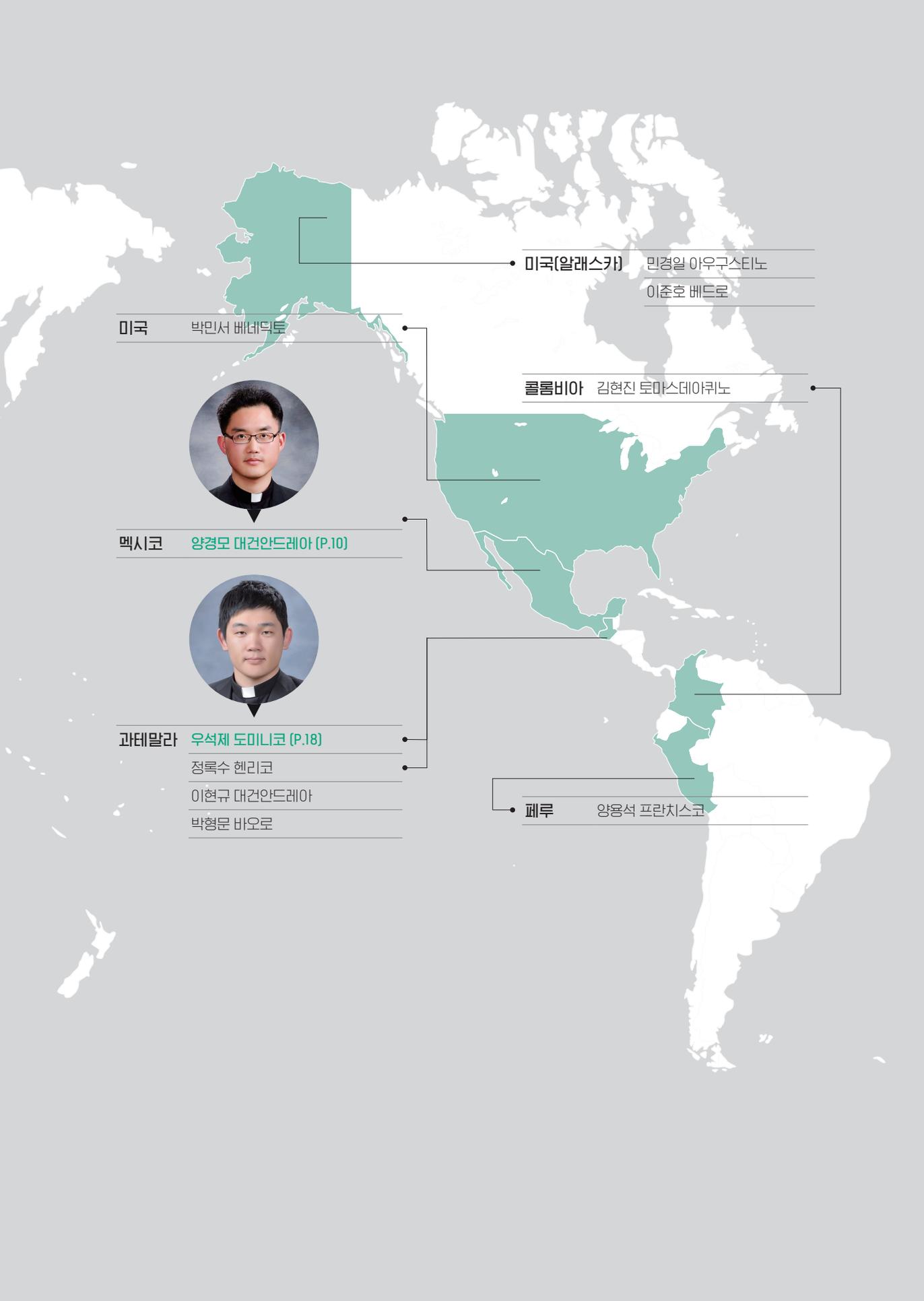
김재원 베드로사벨 (P.15)

임창재 요한마리아비안네

김경진 베드로

## 보호 특집

1. 해외선교봉사국 | 국장 송영호 신부 (p.04)
2. 돌아온 선교사의 마음 | 일본 신광수 신부 (p.06)
3. 우.분.소 우리 본당을 소개합니다 | 멕시코 양경도 신부 (p.10)



• 미국(알래스카) 민경일 아우구스티노  
이준호 베드로

미국 박민서 베네딕도



콜롬비아 김현진 토마스데아퀴노

멕시코 양경모 대건안드레아 (P.10)



과테말라 우석제 도미니코 (P.18)

정록수 헨리코

이현규 대건안드레아

박형문 바오로

• 페루 양용석 프란치스코

# 참됨의 길, 선교



송영호 안토니오 신부 | 해외선교봉사국장

최근에 파나마와 콜롬비아, 칠레, 페루,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신부님들을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신부님들이 환경과 문화적 적응의 어려움과 때로는 가난과 무신론의 환경 속에서 고민하면서도, 선교사로서 사제로서의 정체성과 소명을 살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시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매력적이신지 내 마음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을 만난 사람들이 바로 선교 사제들입니다. 내 마음과 육신을 다 내어놓고 사랑하는 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지는 예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행복합니다. 고통의 자리, 죽음의 자리, 병고의 자리, 가난의 자리, 때로는 악과 만나는 자리. 내가 힘에 부치고 숨이 턱 밑까지 찰 때라도, 예수님은 내 손을 잡고 슬픔의 강을 건너 생명과 희망과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교구의 젊은 사제들이 예수님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고 생명으로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장하신 신부님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경시하는 세상일지라도, 그분의 현존은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 평화를 심으십시오, 생명의 빛을 밝혀주십시오.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승리하고 계심을 온 삶을 통해서 드러내십시오.



사랑하는 신부님들, 감사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보며 그분과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 서울대교구 선교사 신부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은인님들께도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당신께만 참 생명이 존재합니다. 당신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랑에 눈뜨게 하소서. 아멘.

# 돌아온 선교사의 마음

신광수 베드로 신부 (일본 후쿠오카교구)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이라면 누구나 '재입대'하는 꿈을 한 번 씩 꾸니다. 저 또한 병장 만기 전역 뒤에 종종 그러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다가 군중 신부가 되고 난 이후에는 재입대하는 꿈을 더는 꾸지 않았습니다. '꿈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으로 귀국한 뒤, 자주 선교지와 관련된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한국에 돌아왔는데 후쿠오카교구로 다시 파견되는 꿈입니다. 내용은 다 다르지만, 기억나는 몇 가지는 후쿠오카 주교님이 새로운 곳으로 저를 보내시기도 하고, 알고 지냈던 신자분들과 재회해서 회포를 푸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계속 '내가 한국에 완전히 돌아간 건 아니구나...'라며 일본어로 떠드는 모습이 보입니다. 만 7년이라는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의 여운이 아직 채 가시지 않았다는 뜻이겠지요.

해외선교봉사국 소식지의 마지막 글을 준비하면서 어떤 내용이 좋을까 고민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파견되어 귀국하신 많은 신





부님과 같은 글이면 좋으려만, 뒤돌아보면 후회투성이인 제 모습이 떠올라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신부님들에게는 죄송스러운 마음이 더욱 큼니다.

2016년 10월 31일. 짐을 바리바리 싸 들고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한 날은 기대와 설렘,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의 다짐은 하나였습니다. '신자를 늘리기 위한 선교가 아닌, 신앙을 늘리기 위한 선교를 하자.' 어떤 특별한 이벤트나 행사로 사람을 불러모으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깊은 맛을 지닌 노포 식당처럼, 예수님의 거룩한 몸을 언제나 모실 수 있도록 돕는 선교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언어에 대한 소질이 부족한 탓에 떠나는 날까지 언어의 어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오늘은 어떤 새로운 표현을 배울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할까...' 등등 일과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해보아야 했습니다. 특히, 강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늘 '성령의 도우심'을 빌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옛날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 여러 언어로 복음을 선포했듯이, 저 또한 그러한 은총이 내려지기를 청했습니다만.... 제 믿음이 부족해서인지 매번 손짓, 발짓해가며 겨우 이어간 모습만이 떠오릅니다.

언어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졌다 해





도 일본에서의 선교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어나 문화 간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오해와 착각이 선교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행여, 단어 선택의 실수로 잘못된 표현을 쓰게 되면, 상처받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힘든 일만 잔뜩 있던 것은 아닙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곰곰이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선교 하러 갔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제가 '선교 되어 돌아왔다,'고 느낍니다. 오히려 제가 왜 사제가 되었는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언어장벽과 문화의 차이로 풀이 죽어있던 어느 날, 터덜터덜 성당에 들어가 성전의 십자고상을 바라보며 혼자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마음은 온데간데없고, 매일 매일 여기서 지내는 게 너무 힘듭니다. 우둔해서 말도 서툴고, 이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멍하니 십자가만 보다가 성전을 나섰습니다. 홀로 있는 성당에 무거운 침묵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평소와 같이 미사를 드리는 중에 한가지 말씀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미사는 사제만이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하고 당연한 말인데, 이 짧은 말씀이 가슴을 뜨겁게 해주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말을 잘해서, 잘나서 사제가 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필요로 하셔서 사제로 부름을 받았다고. 이 세상에서 축성 받은 사제만이 성체성사를 통해 한낱 빵에 불과한 것을 예수님의 거룩한 몸으로 축성할 수 있다고. 비천한 몸일지언정 그분께서 불러주셨고 ‘이를 행하여라’라고 하셨기에 그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저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저와 함께 있는 공동체의 신자분들과 교구의 신부님들을 통해서 더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흩어졌던 신자분들이 하나둘씩 성당으로 모이는 모습을 보면서, 내 생각이 맞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늘 옳으신 분이

---

## 일본

**수도** 도쿄

**면적** 37.8만km<sup>2</sup>  
(세계 61위,  
한반도의 약 1.7배)

**인구** 1억 2,626만명  
(세계 11위)

**종교** 신도(神道, 일본 고유의  
민족종교) 84%  
불교 66.8%  
기독교 1.5%, 기타

**성인** 42명

**복자** 396명

**수호** 성 세례자 요한

**성인**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관할** 대교구 3개, 교구 13개

**구역** 성직자치단(성공회) 1개

---

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더 오랜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 저의 은인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신 신부님,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에 돌아가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면서 그 모습으로 이곳 신자들을 다시 만나준다면,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후쿠오카에 놀러 오면 그때 맛있는 식사 꼭 같이합시다.” 늘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분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지만, 감사의 마음을 더욱 크게 품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미사를 바치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이 되어 벚꽃이 필 때 만나러 가겠다고 87세의 ‘오네상(누님이라는 뜻입니다.)’과의 약속을 지키려 합니다.

또한, 해외 각 현지에서 고생하시는 형제 사제들, 특히 구마모토에 계신 성덕 김성천 스테파노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선교 사제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지원해주신 모든 후원회원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우리 본당을 소개합니다

# 우·본·소

멕시코 | 몬테레이대교구



## 양경모 대건안드레아 신부

안녕하세요! 2023년 봄호를 통해 처음으로 제 소식을 전한 게 엇 그제 같은데, 벌써 멕시코에 온 지도 1년하고도 8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제가 있는 누에보레온주는 수도로 멕시코의 북쪽, 미국 텍사스주 동쪽과 맞닿아 있는 지역입니다. 대한민국의 약 3/5 정도 되는 큰 주인데, 그중에서도 저희 본당인 파티마 성당(parroquiay santuario de nuestra señora de fátima)은 이 주의 수도인 몬테레이, 그중에서도 산 삐드로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저는 몬테레이 대교구의 가장 큰 본당 중 하나인 파티마 성당에서 협력사제로 일하면서 한인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당은 평일에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미사가 5대, 토요일에도 5대, 주일에는 8대의 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성사 - 유아세례, 혼인 미사, 첫영성체 등- 가 끊이지 않고 거행됩니다. 큰 본당이라 그런지 신자들도 많이 오고 성사도 많이 거행됩니다. 토요일 저녁, 주





## 멕시코

- 수도** 멕시코시티
- 면적** 1,972,550km<sup>2</sup>  
(세계 13위, 한반도의 약 9배)
- 인구** 1억 2,864만 9,565명  
(세계 10위)
- 종교** 가톨릭 82.7%  
개신교 6.6%  
여호와의 증인 1.4%  
무교 4.7%
- 성인** 35명
- 복자** 25명
- 수호 성인** 과달루페의 성모
- 관할 구역** 대교구 19개, 교구 75개  
성직자치구 4개  
대목구 1개

일 저녁에는 거의 모든 미사마다 2명의 사제가 고해성사를 주는데, 평상시 주일에도 약 40~50명이 고해성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신자들이 많이 오는데 명동대성당 같은 규모의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본당의 성시간이 매주 목요일 저녁에 있는데(성시간이 매주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습니다!) 젊은이들을 위한 하구나 성시간이 매주 월요일에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저는 파티마 본당 사제관에서 주임신부님, 2명의 보좌신부님 그리고 한 분의 신학교 교수 신부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스페인어 때문에 100% 온전한 협력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에 1시간씩 일주일에 4번 주말에 고해성사를 주고, 일주일에 한 번은 스페인어 미사를 집전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제를 필요로 할 때 신자들과 면담을 하고, 요청에 따라 가정 방문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신자들은 정말 따뜻하고 유쾌합니다. 말을 잘못하는 한국인 신부를 본당의 보좌 신부로 받아들이고, 항상 존칭을 쓰면서 존중해 줍니다. 특별히 많은 신자분이 “Mi casa, su casa!(제집은 신부님 집입니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면서, 언제든지 집으로 오라고 초대를 하십니다. 심



지어 어떤 신자분은 자신의 집 비밀번호를 종이에 적어주며 언제든지 와서 쉬고 가라고 하셔서 정말 감동한 적도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 본당의 협력사제로 저는 조금씩 적응하고 있습니다.

현지 신자들을 위한 사목에 협력하는 일 외에 저는 한인 성당의 사목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몬테레이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대사관 공식 집계로 약 4,000명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단기로 출장을 오시는 분들까지 합치면 5,000~6,000명까지 생각할 수 있고 현재 이 숫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한국어 미사는 파티마 성당의 경당을 빌려서 수요일 오전 10시 30분과 주일 오전 9시, 주 2회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미사 전에 함께 모여 묵주기도를 바치고 미사를 봉헌합니다. 지금은 사순시기라 십자가의 길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다니시지 않는 자매님들만 나오시는데, 강의가 있거나 다른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약 25명까지 나오시지만, 보통은 15~20명 내외입니다. 한국인 신부가 없을 때는, 이 본당의 보좌 신부가 한국인 공



동체를 위해서 스페인어로 주일미사를 봉헌해주셨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약 30명에서 50명 정도의 신자들이 참석했다는데, 제가 이곳에 온 이후에는 적으면 60명, 많으면 110명의 신자가 미사에 참여합니다. 사제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저희가 이곳을 빌려 쓰고 있는 형편이라 무엇을 도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다음에 바로 영어 미사가 있어서 미사 후에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을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미사가 조금만 늦게 끝나도 다음 미사 준비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영어 미사 봉사자들이 성전 뒤에서 짜려보는 일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몬테레이대교구와 파티마 본당에서 너무나 큰 배려를 해주고는 있지만, 셋방살이의 설움이라고나 할까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한인 공동체 구성원들의 특징도 해외 다른 국가와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형제님들의 파견으로 3-4년 동안만 이곳에 머물



다가 한국으로 귀임하는 가족들과 조금 더 오래 머무는 가족들로 나누어지는데, 주재원 가족들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은 편이어서 장기적으로 무엇을 도모하고 안정화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난해에는 몇 년만의 첫영성체와 세례식을 거행해서, 11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첫영성체를 했고 12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이후에 중단되었던 미사 후 다과를 시작하는 등 이제 조금씩 움직임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곳에 와서 현지인 사목에 대한 협력과 한국인 신자들 사목을 동시에 맡게 되어, 참으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인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스페인어는 빨리 늘지 않고, 그렇다고 멕시코 사람들하고만 지낼 수도 없고... 해외 경험이 처음도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힘들고 현실이 슬프던지 혼자 눈물도 많이 흘렸고 기도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강생의 신비, 왜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는지 많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계속 사람들로부터 도망치고 싶은데 하느님은 내가 도망치는 이 현실에 사람이 되어 오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반성도 많이 하게 되었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로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지 이야기

# 대만 신주교구

김재원 베드로 샤넬 신부

야훼이레!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신다.

+ 찬미 예수님

새봄을 맞이하며 모두 기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피데이 도눔'으로 대만 신주교구에 오게 된 지도 어느덧 만 5년이 지나 6년째가 되었습니다. 교구 간의 선교 사제 파견은 상호 계약으로 이루



어지는데, 계약의 기간은 보통 3년에서 5년입니다. 제 경우에는 첫 계약 기간이 5년이었기에 6년째라 함은 재계약을 하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난 5년이라는 시간은 사실 언어를 배우고, 적응하고, 사람들을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말하기에는 더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본당 사목과 더불어 교구 안에서 청년성서모임을 비롯한 청년 사목에 대한 책임도 맡게 되어, 자연스럽게 재계약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3년 전 우연히 청년성서모임의 창세기 교재를 서울에서 중국어로 번역해서 출판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시도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창세기 교재만 가져와서 본당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룹 나눔을 시작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청년성서모임은 특성상 교재뿐만 아니라 그룹 나눔이나, 그룹 모임 이후에도 이어지는 연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저의 부족한 중국어 실력으로 탈출기, 마르코, 요한 교재를 이



---

## 대만

**수도** 타이베이

**면적** 3.6만km<sup>2</sup>  
[세계 136위,  
남한의 약 1/3]

**인구** 2,381만명  
[세계 57위]

**종교** 불교 35.3, 도교 33.2%  
기독교 3.9%  
전통도교 또는  
전통유교 10%,  
기타

**관할** 대학교 1개  
**구역** 교구 7개

---

어서 번역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었는데, 하느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서울에서 창세기 교재를 번역했던 자매가 마침 대만으로 오게 되어서 다른 교재의 번역을 도와준 것입니다. 교구장 주교님도 전적으로 지원해주셨으며, 교구 청년 프로그램으로 추진할 수 있게 허락해주셨습니다. 서울에서도 손희송 주교님을 비롯하여 청년성서모임 담당 신부님들도 기쁘게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번역 작업을 마친 탈출기, 마르코, 요한의 교재를 출판하게 되었고, 작년 부활을 기점으로 청년 성서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적은 인원으로 출발했지만 참여한 청년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4개의 본당에서 5~6명의 청년이 모여 그룹 나눔을 하였고, 연수까지 마친 3개 본당의 청년들은 바로 이어서 다음 단계의 그룹 모임을 다시 시작하여 그룹 나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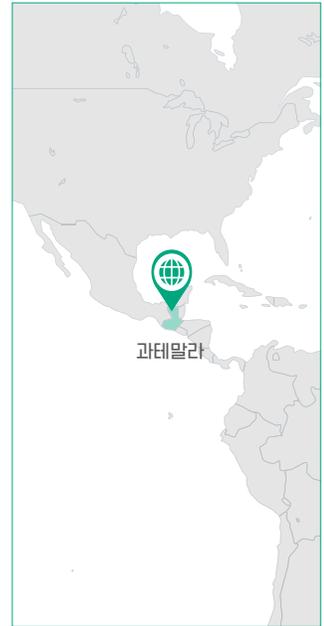
서울과 조금 다른 점은 본래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순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마르코, 창세기, 탈출기, 요한 순으로 바꿨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대부분 성경을 거의 처음 접하는 청년들에게 우선 마르코 복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관계를 맺어야 다른 텍스트를 접하더라도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읽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중간에 그만두는 청년들이 있다면, 창세기, 탈출기만 읽고 예수님은 만나지도 못한 채 그만두는 게 아닌, 적어도 복음을 읽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직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만에서 처음으로 청년성서모임이 시작되는 과정 안에서, 저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계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느님 말씀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 대만 교회의 청년들에게 많은 열매를 맺는 커다란 나무로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과테말라 산티아고대교구

## 우석제 도미니코 신부

안녕하세요. 저는 과테말라 선교사제 우석제 도미니코 입니다. 저는 작년 4월, 이곳 과테말라에 도착하여 지금까지 1년 동안 스페인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 과테말라에는 이미 선배 신부님이신 김현진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께서 산티아고대교구 사카테페케즈 지역의 성베드로 성당에서 선교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본당에서 어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당 미사와 성사 집전을 도와드리며 공부를 하다가, 작년 하반기에는 어학에만 집중할 필요성을 느끼고 해외선교봉사국의 지원을 받아 볼리비아라는 나라에서 3개월 동안 어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넘치는



---

## 과테말라

**수도** 과테말라시티

**면적** 108,889km<sup>2</sup>  
(세계 105위,  
한반도의 1/2)

**인구** 1,791만명  
(세계 66위)

**종교** 천주교 47%  
개신교 40%

**성인** 1명

**복자** 15명

**수호 성인** 성 야고보(대)

**성인**

**관할** 대교구 2개, 교구 11개

**구역** 성직자치구 1개  
대목구 2개

---

자신감으로 본당 일을 도우면서도 어학 공부를 잘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겸하는 것은 제 욕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3개월간의 집중어학 공부는 스페인어 실력을 늘리는 데 탁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예전에 전혀 들리지 않았던 신자들의 말이 이제는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지역 사제모임에 참여했을 때 무슨 말인지 몰라 울적했던 예전과 달리, 신부님들의 대화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하고 가끔은 농담도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언어의 장벽으로 과감하게 도전했지만, 자괴감과 실망감으로 돌아왔던 많은 일이 점차 기쁨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역시 언어라는 것은 삶이고, 새로운 삶을 이해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응당 긴 시간이 요구됩니다. 그렇기에 지나친 욕심을 가졌던 저 자신을 반성하며, 겸손하게 선교사로서 살아가자고 저 스스로 격려를 하는 요즘입니다.

지난 1월 중순에 다시 과테말라로 돌아와서 지금은 새 본당 주임 신부님이신 이현규 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도와드리면서 어학 공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곧 언어 습득 기간이 끝나기에 현지 교구에 인사발령 신청서를 내놓았으며, 이곳 본당의 보좌신부이자 선교사로서 발령이 나기를 희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 본당에서는 크고 작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2월 초에는 청년성서모임의 3번째 창세기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수를 위해 페루에서 선교하고 계신 영원한 도움의 성모회 수녀님 두 분을 초빙하였고, 본당 신부님과 12명의 현지 연수 봉사자들이 열성을 다해 연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주 도우미와 고해성사를 지원하며 동참하였습니다. 한국 청년성서모임과는 달리, 이곳은 현재 실험적일 만큼 초기 단계이기에 성서 공부를 하는 대상이 중학생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어린 청소년부터 50대의 어른들까지 총 29명의 연수생이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고풍스러운 피정의 집에서 성서 연수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살아계신 하느님은 강의, 기도, 고해성사, 미사 등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는지, 많은 연수생의 웃음과 눈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봉사자들과 신부님 수녀님들은 매우 애를 쓰셨고 가끔은 어려운 일도 일어나기도 했지만, 하느님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일치된 지향은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해주었습니다. 청년성서모임은 앞으로의 길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초보 단계의 길을 벗어나 더 체계를 갖추고 현지의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본래 모임의 취지를 잃지 않는 토착화 단계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곳 신자들이 주도적으로 함께 걸어가며 이 모임이 잘 이루어지길 기도해 봅니다.



그렇게 창세기 연수를 끝내고 나니, 어느새 회개와 보속의 시기인 사순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곳 신자들은 사순시기에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두 대의 죄의 수요일 미사를 집전하였는데, 매년 성당에 신자들이 꽉 들어찼습니다. 또한, 이곳 신자들은 머리에 재를 얹은 채로 종일 일상생활을 합니다. 금요일에는 단체 혹은 가정의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는데, 성당에서 출발하여 길거리를 걸으면서 약 2시간 동안 진행합니다. 주일에는 안티구아 시내까지 약 12시간 동안 예수님상과 성모님상을 태운 거대한 가마를 어깨에 얹고 행렬을 합니다.

이곳 지역 성당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사순시기 고해성사를 진행합니다. 약 20여 개의 지역 본당들이 날짜와 순서를 정해서 지역의 모든 신부가 모여서 고해성사를 도와줍니다. 저는 저번 주에 처음 동참하였는데 4시간이 지나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을 정도로 수많은 신자가 고해성사를 보러 오셨습니다. 아마도 천 명이 넘는 신자분이 고해성사를 보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직 스페인어가 부족해서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보속을 드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에게 무언가 사순시기의 동기를 유발하는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남은 19번의 공동고해성사가 약간 두렵긴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곳 신자분들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으리라 희망해 봅니다.

이러한 이곳 신심 활동들을 보면서 가끔은 너무 과하거나 기복적이란 느낌도 들지만, 한국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열정적인 신앙을 아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신자분들을 보면서 너무 머리로만 따져왔던 저의 신앙의 습관들을 반성하게 됩니다. 또한, 저도 모르게 문화적으로,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무언가를 꼭 가르쳐줘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우월감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 자신에게 말하곤 합니다. “이곳 신자들은 한국 교회보다 역사가 오래된 선배 신앙인들이다.



이분들의 신앙을 배우자!” 그래서 저 역시나 초보 선교사로서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겪고 있나 보다 싶습니다.

사실 아직 제대로 선교사로서 일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많은 것들이 깨지는 것을 보면서, 하느님은 앞으로도 얼마나 많이 나를 더욱 깨우치시고 힘든 일을 허락하실까, 두려움도 생깁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러하듯, 늘 항상 더 큰 하느님이시기에 그분의 계획이 저의 욕심과 교만함을 깨부수고, 예수님과 더욱 가까운 신앙인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을 믿으며, 이번 사순시기를 보내고자 합니다. 이러한 지향과 함께 한국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시는 해외선교후원회 회원분들과 현지에서 열성을 다해 일하고 계신 선교사분들 모두가 은총의 사순시기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쁘게 만나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모든 선교사제가 아프지 않고, 끝까지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지 이야기

# 일본 오사카 -다카마쓰대교구

정해성 베드로 신부

아이들의 첫걸음마처럼 한 발자국을 내디뎌서

새로운 환경을 맞이한다는 건 참 신기합니다.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새로운 것을 알아가며 즐거운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마냥 즐겁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익숙하게 몸에 익어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만 알았던 것을 낯설게 받아들여 두렵기도 하고 당황스럽게 느끼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떠나 온 짧은 시간 동안, 저는 가깝지만 낯선 곳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신앙을 지닌 이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복음을 전하고, 함께하는 삶이 새롭게 시작

되는 순간입니다. 새로운 순간을 시작하며 그 첫걸음을 이제 막 내딛는 아이와 같이, 조금은 두렵지만 조금은 두근거리며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무더위로 한창 고생하며 2023년 처음 도착한 이곳에서는, 새롭지만 당황스러운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고향 땅에서라면 매우 익숙하게 느껴졌을 말하고 쓰는 방법을 새롭게 배우며, 낯선 곳에 와있음을 실감하게 될 때, 두려운 마음도 참 많았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내가 하는 말이 틀려서 실례가 되면 어떻게 하지?’, ‘지금 사용하는 단어를 착각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닌가?’ 마음속으로 부정적인 생각이나 당혹스러움을 느끼며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할 때, 제가 사는 공동체의 분들은 기쁘게 저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처음으로 말을 배울 때 틀린 부분이 있어도 나무라지 않고 웃으며 몇 번이고 다시 말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곳의 생활을 하나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오사카-다카마쓰대교구 소속의 사카이성당(カトリック堺教会)에 머물며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에서 많은

## 일본

**수도** 도쿄

**면적** 37.8만km<sup>2</sup>  
(세계 61위,  
한반도의 약 1.7배)

**인구** 1억 2,626만명  
(세계 11위)

**종교** 신도(神道, 일본 고유의  
민족종교) 84%  
불교 66.8%  
기독교 1.5%, 기타

**성인** 42명

**복자** 396명

**수호 성인** 성 세례자 요한

**성인**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관할 구역** 대교구 3개, 교구 13개  
성직자치단(성공회) 1개

분이 여행으로 방문하는 오사카시 아래쪽 사카이시에 있는 성당이며, 올해로 100주년이 되는 곳입니다. 오래된 성당 중 한 곳 이어서인지 오사카-다카마쓰대교구에서도 신자들이 꽤 많이 모여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당에는 일본인 신자들뿐만 아니라, 필리핀이나 베트남의 신자들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머물며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 신앙공동체의 생활은 어떤 모습인지 익혀가고 있습니다.

제가 머무는 공동체는 한국에서의 생활과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세계 어느 곳이든 동일하지만, 생활의 형태가 조금은 다릅니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 사제의 수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목 형태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한 본당만 담당하기도 하지만 여러 본당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머무는 이곳은, 두 분의 일본인 신부님과 한 분의 콩고인 신부님, 총 세 분이 네





주님에 대한 신앙을 지닌 이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복음을 전하고, 함께하는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곳의 본당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물론 본당만을 담당하지는 않고 학교법인이나 교구의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시기도 합니다.

처음 도착했을 무렵에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기에,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으며 좌충우돌 생활을 했습니다. 전례문을 제대로 읽지 못해 일본 신부님들이 집전하시는 미사에 공동집전으로 함께 들어가, 경문 읽는 방법을 하나씩 외워 두었다가 메모를 해두곤 했습니다. 미사와 전례에 대한 것을 조금씩 배우고 익히면 될 것이란 생각에, 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질 무렵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생활하는 신부님들께서는 매우 바쁘시기에, 새해가 되어서는 저

도 미사를 홀로 봉헌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내용을 이미 알고는 있지만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므로 천천히 미사를 봉헌합니다. 물론 아직 서툰 제 모습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나아질 것이란 마음을 품고 신자분들에게 매번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미사를 봉헌합니다. 그렇게 미사를 봉헌할 때면, 신자분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기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미사를 봉헌하던 날에 너무 긴장하고 떨린 나머지, 신자분들의 응원을 받았던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심지어 그러한 경험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제가 머무는 공동체에서 네 곳의 본당을 담당하기 때문에, 새로운 성당에 갈 때마다 새로운 신자분들을 만나게 되고 매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은 익숙해져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매번 다른 본당의 신자분들을 만나게 되므로 긴장의 끈을 놓을 틈이 없습니다. 그래도 매번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제 잘한다고 농담을 하시며 칭찬을 해주시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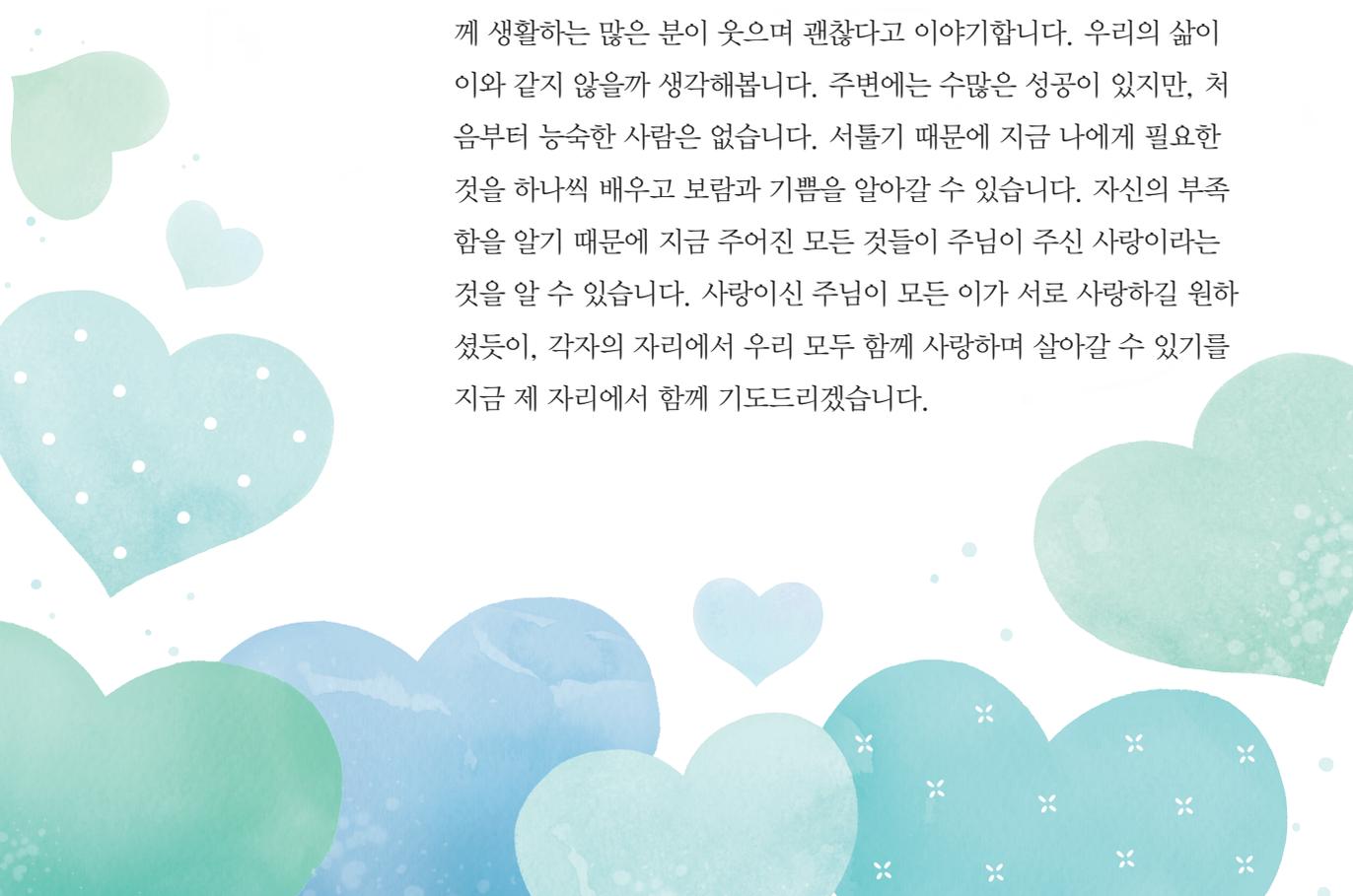
선교지로 떠날 생각만이 크게 자리 잡아, 거창한 목표나 아주 먼 미래의 일에 관한 생각이 가득했던 때와 지금의 모습은 참 많이 다릅니다. 당시의 생각들이 아주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처음 생각들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상상했던 많은 것들은 실제의 생활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배웠던 것들은 제가 목표로 해야 할 것이 아니었고, 살아가는 방법이 더 중요하기에 그 의미를 하나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신자분들은 제게 그리 거창한 것을 바라지 않으시고, 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사랑의 의미를 각자의 삶을 통해 알아갑니다. 저도 신자분들께 제가 배우고 생각한 것을 알려주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함께하며 주님이 많은 이를 향해 말씀하신 사랑의 의미를 새롭게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떠나올 때 품었던 거창한 생각들이 전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바라시

는 것 또한, 이 순간 각자의 자리에서 당신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이 이렇게나 다양함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신 신앙과 사랑이 글로만 전해지는 가르침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의 오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의 삶을 통해 많은 것을 새롭게 알아가며 얻고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은 말이나 글이 아니고 살아있는 것이기에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모른다면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 복음과 신앙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미들을 알고 있을 때, 삶의 체험들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신 사랑의 의미는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만나는 많은 분의 눈에서, 그리고 그들의 말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의미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수가 잦아 걱정되기도 합니다만, 그러한 저를 바라보며 함께 생활하는 많은 분이 웃으며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주변에는 수많은 성공이 있지만, 처음부터 능숙한 사람은 없습니다. 서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씩 배우고 보람과 기쁨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신 주님이 모든 이가 서로 사랑하길 원하셨듯이,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지금 제 자리에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 서울대교구 해외선교봉사국 해외 선교사제 명단

[9개 국가 22명]

국가명	이름	국가명	이름
과테말라	정록수 헨리코	일본	김태근 베드로
	이현규 대건안드레아		김윤복 모세
	우석제 도미니코		김필중 세례자요한
	박형문 바오로		안민우 아우구스티노
대만	임창재 요한마리아비안네	독일	김성천 스테파노
	김재원 베드로샤벨		정해성 베드로
	김경진 베드로		기호배 맞세오
미국	민경일 아우구스티노 (알래스카)	콜롬비아	신정호 미카엘
	이준호 베드로 (알래스카)		김현진 토마스데아퀴노
	박민서 베네딕토	멕시코	양경모 대건안드레아
스페인	고가람 스테파노	페루	양용석 프란치스코

+ 선교 중이신 신부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 선교를 위한 기도

"만민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 명하신 주님,  
말씀의 빛으로 이 땅을 비추시고,  
순교자들의 신앙 위에 한국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기도와 희생과 열성이 부족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당신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하시어  
저희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진리요, 생명이신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선교의 열정으로 하나 된 저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도 이겨 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소서.  
주님께서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성인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2024년 2월 납부일 기준]

강덕금 강명희 강민주 강민정 강상홍 강서혜 강선경 강선홍 강수희 강신득 강영자 강은숙 강이순 강정애 강지현 강진선 강춘희  
강판현 강풍자 강현주 강혜란 고경식 고승진 고영임 고영주 고윤숙 고은실 고의영 고정원 고혜숙 공정삼 박상원 곽희경 구기은  
구경모 구모석 구민영 구민희 구승모 구연모 구자순 구주현 권경애 권성혁 권오경 권오영 권옥수 권익란 권효정 길혜자 김경란  
김경희 김공계 김광자 김국희 김규엽 김규대 김금자 김기수 김기용 김길옥 김나은 김난옥 김남균 김다영 김덕수 김덕영 김도연  
김동구 김동현 김란숙 김명옥 김명춘 김명희 김묘식 김미경 김미숙 김미자 김미재 김미화 김민성 김민수 김민욱 김민주 김병국  
김봉조 김봉흠 김상욱 김선태 김선화 김선희 김성년 김성호 김성희 김세령 김세인 김수연 김수정 김수지 김수진 김수현 김수희  
김숙자 김순금 김순동 김순자 김순희 김솔기 김승규 김승희 김시훈 김신순 김애생 김애정 김양기 김양자 김연수 김영미 김영신  
김영애 김영운 김영희 김옥심 김옥제 김완식 김용기 김용해 김용희 김우경 김우찬 김원선 김원임 김원중 김원철 김월순 김유경  
김유빈 김유정 김은자 김민복 김민수 김지원 김장묵 김재동 김정숙 김점순 김정란 김정복 김정숙 김정애 김정오 김정용 김정호  
김정희 김종철 김종필 김주경 김주현 김지민 김지애 김진선 김진영 김진홍 김진희 김채영 김채희 김청자 김춘숙 김충희 김태순  
김태운 김태현 김학덕 김한근 김현상 김현숙 김현정 김현준 김혜숙 김효준 김후덕 김희령 김희선 김희정 나범수 나석연 나정애  
남승관 남승민 남 정 남정희 남하현 노승경 노승주 노옥란 노혜영 류정란 맹미숙 문월순 문준철 문태주 민은하 민정묘 민지희  
박경숙 박경진 박경희 박고운 박금순 박기식 박기철 박남주 박다운 박명량 박명숙 박병선 박봉자 박상우 박של진 박성규 박성분  
박세진 박수진 박승보 박연수 박영숙 박영신 박옥희 박유나 박윤경 박윤숙 박은덕 박은호 박정남 박정숙 박종숙 박주영 박지영  
박지현 박진복 박진수 박진희 박태련 박태안 박혜경 박혜숙 박호숙 박호진 반세록 방수희 방애자 배귀선 배근아 배수정 배영민  
배현열 백경서 백영옥 백선혜 백승자 백영숙 백용남 백은숙 백일순 변광국 변신호 사춘숙 서수용 서숙자 서순자 서안나 서영숙  
서영순 서영진 서용재 서유진 서주영 서효숙 석정미 석훈희 성경희 성락숙 성원경 성윤석 성정민 소정윤 손명숙 손봉희 손태호  
손효영 송금선 송민석 송민우 송영남 송이중 송재일 송진아 송혜원 신경애 신미경 신상자 신서영 신선미 신선희 신수경 신수점  
신양선 신유리 신윤숙 신재승 신재영 신정삼 신중훈 신 현 신현하 신혜옥 심근자 심수미 심영란 안경숙 안다영 안명순 안문숙  
안성준 안숙영 안영춘 안용찬 안종임 안종혁 안형숙 안호현 안효일 양기덕 양길자 양대동 양도경 양병숙 양선자 양성훈 양정호  
엄인영 엄주영 엄지원 연연흠 연정숙 연제현 연현철 오귀애 오미희 오성은 오세성 오영선 오옥남 오인환 오정석 오정훈 오종숙  
오종훈 오주현 오지철 오지현 오진선 오철환 오춘숙 오충기 오현정 오희수 오희숙 옥다슬 왕규철 왕은순 우종철 원경식 원영연  
원인영 유경자 유다연 유미숙 유 숙 유승연 유윤식 유인숙 유지민 유한석 유한주 육소인 윤경애 윤도희 윤동노 윤 배 윤선화  
윤세현 윤소영 윤은희 윤인선 윤재후 윤지숙 윤필용 윤현옥 윤홍자 윤효석 이강석 이건희 이경애 이경여 이경옥 이경혜 이경환  
이규원 이금숙 이금주 이길자 이나은 이동근 이두식 이민수 이병재 이민재 이방자 이병열 이병주 이보차 이복금 이복동 이복순  
이상구 이상엽 이선민 이선애 이성범 이성자 이성희 이숙노 이순금 이순명 이순이 이순자 이승용 이양자 이연수 이연향 이연희  
이영순 이영옥 이영임 이영준 이영희 이예숙 이예진 이옥란 이옥희 이용승 이우령 이운천 이원미 이우감 이우진 이은태 이인숙  
이인순 이인자 이재준 이재희 이정우 이정민 이정연 이정옥 이정원 이정희 이재현 이종필 이종임 이준철 이준화 이지욱 이지인  
이지현 이지훈 이창경 이창엽 이채미 이철환 이춘자 이태숙 이태종 이현경 이현아 이현애 이형자 이혜련 이혜영 이 호 이홍재  
이희나 이희숙 임경애 임교선 임대홍 임동은 임목상 임미자 임미정 임병남 임복덕 임선혜 임수연 임수주 임순자 임순희 임욱연  
임용숙 임정렬 임정자 임주연 임태헌 임현준 임현진 임혜자 장명수 장명훈 장복자 장순자 장용근 장재진 장정례 장정순 장진희  
장착한 장춘자 장효숙 전경복 전병주 전성실 전옥순 전은민 전은경 정경화 정대균 정동욱 정명아 정병희 정상은 정상민 정선경  
정선화 정소영 정순이 정영선 정완심 정운용 정윤희 정재현 정지혜 정진규 정찬훈 정철운 정태양 정평화 정홍경 정효남 정희자  
제민경 조건웅 조경자 조나라 조남욱 조도연 조문경 조복래 조우진 조원주 조주연 조현수 조혜진 조희문 주경희 주선미 지정순  
지창순 지 형 진갑연 진정자 진창환 차명훈 차영미 채상경 채종서 채행찬 채희정 천유진 최강호 최경희 최길번 최명근 최문성  
최보성 최선명 최성지 최성진 최성태 최세화 최소중 최승한 최영옥 최영호 최옥경 최옥란 최 용 최윤근 최원정 최윤보 최은주  
최재은 최정윤 최정은 최정자 최재원 최준일 최지영 최진이 최춘자 최한기 최현주 최형기 최호순 최환희 최희중 추명진 탁정환  
태연순 태철민 하명자 하복례 하봉자 하정순 하지운 한미정 한승지 한영미 한윤예 한은비 한재정 한정우 한창준 한희수 함재정  
허 경 허미래 허영진 현문섭 현성순 현정애 현에서 홍권실 홍석준 홍성숙 홍순욱 홍승예 홍영덕 홍재모 홍정자 홍주희 홍청자  
홍필선 황경혜 황규영 황복순 황영옥 황은희 황정록 황정숙 황지선 황준익 김미카엘 박마리아 성희찬이 돈암동성당 킹스쿨학원  
이행사임정옥 니원교문시놀 Fr.구부석 Fr.김연범 Fr.김원철 Fr.박규홍 Fr.박민재 Fr.박우준 Fr.우요한 Fr.이계호 Fr.이병철 Fr.임삼무  
Fr.한성호 Fr.황중호 익명

#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루카 9,60

서울대교구 해외선교봉사국 산하 단체인 해외선교후원회는, 현재 전 세계 9개 국가에서 하느님 사랑을 전하고 있는 22명의 서울대교구 소속 선교 사제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세계 곳곳의 이웃들과 그들 곁에서 땀 흘리고 있는 선교 사제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 문의** | 02) 727-2407, 2409

**후원 미사** | 매월 첫 목요일, 명동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홈페이지** | <http://mission.catholic.or.kr>



## ☎ 후원회원이 되시면?

- **후원 미사 · 특별 강의:** 월례 미사 및 해외선교 관련 행사에 초대합니다.
- **소식지:** 해외선교사제와 후원회 소식이 담긴 간행물을 분기별로 우편발송 해드립니다.
- **연말정산:** 후원금을 납부하시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신청자에 한함]
  - ※ 회원명과 입금자명이 동일한 경우에만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교구 방침에 따라 회원명을 변경하여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 선교 사제들이 미사와 기도 중에 후원회원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 후원 계좌 -

우리 454-035571-13-101 · 국민 375-01-0091-080 · 신한 140-009-624437 · 농협 386-17-002881  
예금주: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 - 후원 방법 (①,② 중 택일) -

- ① QR 코드 접속 또는 ARS 1877-1336
  - CMS(자동이체), 신용카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한 정기·일시 후원이 가능합니다.
- ② 직접 후원계좌로 송금 또는 자동이체 신청 후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위의 4개 은행 중 택일]



후원 신청 QR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님의  
이임감사미사로 인해  
2024년 4월 4일 오후 2시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는  
취소되었습니다.



## 해외 선교 사제 파견미사

일시: 2024년 3월 21일(목) 오후 2시  
장소: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  
집전: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  
파견사제: 정록수 헨리코 신부(과테말라)  
기호배 맛세오 신부(일본)

\*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공지사항



### 회원정보 변경 요청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  
회원께서는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소식지 반송 및 기타 업무 처리  
에 어려움이 있으시니 필히 전화주시  
기 바랍니다.



### 후원회 사무실 안내

업무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주말 및 공휴일, 교구청 휴무일 제외



## 해외선교 후원계좌

예금주: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우리은행                      국민은행  
454-035571-13-101        375-01-0091-080

신한은행                      농협은행  
140-009-624437            386-17-002881

## “선교는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이며 소명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신부님께서는 해외선교봉사국 사무실로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및 장소는 추후 변동 가능 ☎ 02)727-2424

모임	날짜	시간	장소
해외선교 희망·지원사제 모임	5월 13일	오후 5시	교구청 별관 5층 회의실
	7월 8일		교구청 별관 3층 회의실
	9월 9일		교구청 별관 5층 회의실
	11월 11일		교구청 별관 3층 회의실